

연구논문

남북 군사력 우열에 대한 군간부들의 인식 평가\*

Evaluation on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Power by Military Officers

이 상 진\*\*

Sang-Jin Lee

이 연구는 남북한 군사력의 우열을 비교함에 있어 군간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전력분야가 무엇인지 설문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전체 군사력과 세부 전력분야(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전, 예비군동원, 정신전력, 정보전 수행능력)에서 군·계급별로 우열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체 군사력 인식에 있어 어떠한 세부 전력분야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셋째, 남북 군사력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오류를 분석하였다.

2002년과 2003년 연구결과는 주한미군을 제외하면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이나 2005년 조사에는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부 분야 중에서 한국의 우세는 전장지속능력, 정보전, 공군전력, 해군전력의 순이며, 북한의 우세는 생화학전, 특수전, 예비군 동원전력, 육군전력, 정신전력의 순이었다. 남북 군사력 우열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전력분야는 육군, 해군, 공군전력, 특수전 전력 순이었다. 모든 전력분야에 있어 계급이 높을수록 한국이 북한보다 더 열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제어: 남북한 군사력 우열, 군간부 인식, 동기적 오류

This paper analyzes which of the military sub-fields has an effect on a soldier's eval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power. There are three objectives of this paper. First, it is to analyze whether the South is superior to the North in the overall military power and military sub-fields, without the presence of the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Second, it is to assess which of the military sub-fields influences the overall evaluation

\* 본 연구는 2005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이상진.

E-mail: sjlee@kndu.ac.kr

of military power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Finally, it is to look at whether the professional soldiers have a motivational bias, due to an argument that the military personnel tend to exaggerate the inferiority of their own military power to get more budget for defense construction.

Research in 2002 and 2003 tell us that South Korean military power is slightly inferior to North Korea's. However, research in 2005 shows that military power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lmost equal. The sub-fields in which South Korea is superior are in the order of War Sustainability, Information Warfare, Air Force, and Navy. North Korea is regarded to be superior in the fields of Atomic Biological Chemical Warfare Capability, Special Force, Reserve Mobilization, and Army. The higher ranked soldiers tend to evaluate that the North is superior to the South.

key words : military power comparison, military officer's evaluation, motivational error

## I. 서론

한국군은 창군 이후 1974년 울곡사업을 수행하며 군사력 증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과 비교하여 군사력 증강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는데 다양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군사력 평가방법론이나 남북한 우열 비교 연구가 제6공화국 출범 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리영희(1988)의 연구는 남북한 군사력 우열에 대한 최초의 비판적 분석 연구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군사력 평가에 있어 단순수량비교 방식이나 전력지수 방식에 의해 북한의 우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월등하게 높은 잠재적 동원능력과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를 가졌기에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의 군사력이 우위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정병호(1989)는 남북한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 현존 무력(상비전력)은 실상이며 잠재능력은 남북한이 취할 전략에 의해 좌우되는 허상이기에 잠재능력을 고려한 남북한 균형론이나 남한 우위론에 반대하였다. 현인택(1991)은 남북한 군사력 분석 평가방법으로 양적 비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질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함택영(1998, 1999)은 남북한 군사력 분석에 있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총체적 국력이라는 측면에서 현존 무력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것은 오류이며 경제력, 국가역량, 전쟁수행 잠재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한국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정태적 방법과 동태적 방법에 대하여 장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전력투자비 누계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형근·유승근(2003)은 계량적 방법인 전력지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무기체계 특성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력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남북한 군사력 우열 여부와 평가요소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견해가 상이한 것은 군사력이 무엇이나에 대해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 질적 요소(현인택 1991)와 조직적 능력(함택영 1998) 등을 고려하는 방법과 정도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평가요소를 가지고 군사력 우열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군사력이라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함수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체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용이한 일이 아니며, 객관적 수치와 더불어 질적이며 조직적 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방법론 개발의 관점에서 남북한 군사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부사관 이상의 군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군사력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군간부들은 병력, 무기체계 및 장비 및 군에서의 작전, 군수 활동을 통한 조직적 작전 운영능력을 알고 있으므로 질적이며 조직적 능력도 함

깨 인식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간부들의 인식에 근거한다면 현존 무력뿐만 아니라 질적이며 조직적 능력 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첫째, 군간부들이 설문에 정확하게 답할 만큼 자군 및 타군의 병력 및 무기체계의 수량, 질적 요소, 조직적 능력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군간부들이 군 전체와 자군의 이익을 위해 동기적 의도(motivational intention)를 가질 수 있음으로 설문결과가 객관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거의 끊임없이 군비증강 경쟁을 벌여온 환경 하에서 군관계자들이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 남북한 간 군사력에 있어 북한의 우위론을 계속 주장해 오며 전력지수를 낮게 평가했다는 주장(함택영 1998)이 있기 때문에 동기적 의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간부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있어 인식 상의 우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전력기능 분야별, 군별, 계급별로 비교·분석한다. 둘째, 전체 군사력 우열 인식에 어떠한 세부 전력분야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식을 통한 평가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군 이기주의 혹은 자군 이기주의라는 동기적 의도가 설문결과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군의 어느 계층이 남북한 군사력 평가에 있어 가장 객관적 실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분석한다.

## II. 연구분석과 조사의 틀

### 1. 대북 군사력 우열인식에 대한 분석의 틀

#### 1) 군사력과 세부 영향요인

먼저 군사력의 개념이 무엇인지와 군사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

부 분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전력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전쟁수행능력과 역량으로 정의하며 군사전력, 정치전력, 사상 및 심리 전력, 경제전력으로 구성된다(국방대학교 2005). 군사력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방대학교 2005). 함택영(1998)은 군사력을 '일국의 현존 상비군의 잠재적 전투수행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국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병력), 물적 자원(장비), 조직적 자원(효과성)이 결합된 총체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는 국방대학교의 전력과 군사력 정의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현존 무력과 현존 무력의 전쟁수행 잠재역량을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력이란 국가의 총체적인 전쟁수행능력(war potential)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반면에 군사력은 군사작전 수행능력으로 군사과학기술, 군수산업, 군사제도, 예비전력을 포함한 것이다. 전력은 군사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 두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국방대학교 2005).

전력과 전투력이라는 용어도 사용에 있어 혼란을 준다. 전투력은 군사력의 핵심부분이며 구성요인이 병력의 수와 질, 훈련, 무기와 장비의 수와 질, 병력과 화력의 기동능력, 기간장교의 수와 지휘능력, 군사과학기술이다(국방대학교 2005). 전력은 전투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전투력은 군사력과 구성요인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지만 군사력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군사력도 전력의 구성요인과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어 전력, 군사력, 전투력 등의 용어들의 사용에 있어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군사력 우열에 대해 비교하라고 한다면, 응답자에 따라 전력 차원, 군사력 차원 등 인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개념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남북한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며, 개념인식에 따라 전체 전력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인은 달라질 수 있

다. 전력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광의의 분야, 즉 군사전력, 정치전력, 사상 및 심리전력, 경제전력을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의 분야별로 남북한 전력 우열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전체 군사력 평가로 사용하는 것은 군사력 건설소요 제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 연구의 결과가 군사력 건설소요 제기분야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군사력 구성요인이 보다 현존 군사력 중심으로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협의의 군사력 요인으로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연구에서 협의의 군사력 구성요인으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협의의 현존 군사력 구성은 주로 지상, 해상, 공중전력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세부 전력 기능분야로 이들 세 가지를 포함하고, 이외에 북한이 강한 분야와 한국이 강한 분야를 비교하여 군사력 건설소요로 제기하기 위하여 5개 전력분야를 포함하였다. 5개 전력 세부 분야는 특수전 전력, 생화학전 수행능력, 정신전력, 예비군 동원전력, 정보전 수행능력이다. 이들은 지상군전력, 해군전력, 공군전력과 일부 중복되는 영역도 있지만 어느 정도 구별될 수 있으며 상호 독립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8개 세부 전력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분야별로 남북간 군사력 차이를 잘 알 수 있고 소요제기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과 2003년의 연구에는 세부 전력분야를 8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런데 2005년 연구에는 이들 세부 전력분야에 전쟁지속 능력을 포함하여 9개 분야로 조사하였다. 전쟁지속 능력은 국가의 총체적 전쟁수행 잠재역량으로 볼 수 있으며 동원능력과 경제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2) 평가오류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있어 계통적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오류로 인지적 오류와 동기적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Kruglanski &

Ajzen 1983). 인지적 오류는 잠재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동기적 오류는 개인의 욕구와 욕망이 신념으로 형성되고 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인지하거나 또는 사건을 판단·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에 있어 인지적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Saaty 1983). 그런데 계층화 분석기법을 포함한 설문조사에서 인지적 오류를 감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며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동기적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 관계자들이 국방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력 수준을 더 낮게 과장하여 평가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동기적 오류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평가에서 동기적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느냐와 동기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분석기법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기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계층화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동기적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했지만 오직 인지적 오류만 해결할 수 있었을 뿐이다(윤재곤 1996). 동기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는 한계가 있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동기적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 군사력 수준 평가에서 군인들이 체계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을 낮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군 방위력 건설과 예산확보에 있어 자군 이기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이 군 내외에서 지적되고 있다. 군의 고위급 장교일수록 군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자군을 더 고려

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군 이기주의라는 동기적 의도가 있다면 설문조사에서 자군을 타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 세부 분야 평가에 있어 자군이 담당하는 기능을 타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한다면 자군 이기주의와 동기적 의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동기적 의도가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 2. 대북 군사력 우열인식에 대한 조시문항과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에서 수집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 2005년의 군인 대상 안보의식 조사자료에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전력의 우열을 물어보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력 우열 비교에 있어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분야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전력)을 비교하여 ‘한국군이 크게 우세하다’, ‘한국군이 다소 우세하다’, ‘비슷한 정도’, ‘북한군이 다소 우세하다’, ‘북한군이 크게 우세하다’는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군인 중에서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병사들은 각 분야 전력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막연하게 답을 하여 인지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조사 표집은 각 군의 규모에 비례한 할당표집 방식으로 삼군의 인원비율을 고려하여 육군:해군:공군 = 2:1:1의 계급별로 할당하였다.

조사대상 부대는 근무환경에 따라 개인의 성향이나 의식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전·후방을 망라하였고, 조사시기는 매년 6월말부터 7월초이다. 자료 중 모르겠다는 자료와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유효 표본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유효 표본수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부사관	소령 이하	중령/ 대령	부사관	소령 이하	중령/ 대령	부사관	소령 이하	중령/ 대령	
2002년	150	165	145	57	52	70	50	52	56	797
2003년	122	188	103	50	74	51	51	71	56	766
2005년	81	175	100	52	82	50	54	60	28	682
계	353	528	348	159	208	171	155	183	140	2,245

여기에 포함된 분석은 군인안보의식 조사와는 달리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안보의식조사의 표본수와 차이가 난다. 조사 방식과 다른 설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김병조 외 2002, 2003, 2005).

### III. 대북 군사력 우열 인식에 대한 횡단면/종단면 분석

#### 1. 각 연도별 군사력 우열에 대한 인식차이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의 전체 군사력과 8개 분야별로 2002년, 2003년, 2005년 각 연도별 그리고 3년 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빈도를 계량화한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즉 한국군이 크게 우세하다에 2점, 다소 우세하다에 1점, 비슷한 정도에 0점, 북한이 다소 우세하다에 -1점, 크게 우세하다에 -2점으로 하여 각 빈도수를 곱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표 3〉에, 연도별 우열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가 〈표 4〉에 있다.

〈표 2〉 연도별 분야별 군사력 인식 평균(단위: 점수)

구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전쟁지속
2002년	-0.104	-0.452	0.390	0.581	-0.996	-1.327	0.036	-0.616	0.920	-
2003년	-0.150	-0.390	0.372	0.555	-0.948	-1.153	-0.260	-0.623	0.944	-
2005년	0.031	-0.481	0.389	0.672	-0.971	-1.290	-0.312	-0.768	0.878	1.172

〈표 3〉 연도별 분야별 군사력 인식 표준편차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전쟁지속
2002년	1.048	1.056	1.081	0.996	0.925	0.892	1.112	1.185	0.880	-
2003년	1.061	1.074	1.088	1.018	0.990	0.918	1.159	1.202	0.938	-
2005년	1.031	1.015	1.040	0.967	1.043	0.901	1.158	1.110	0.911	0.805

〈표 4〉 연도별 군사력 우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F값	5.741	1.425	0.067	2.699	0.474	7.984	20.680	3.684	0.952
p값	0.003	0.241	0.935	0.067	0.623	0.000	0.000	0.021	0.386

전체 및 세부 기능별 남북한 전력의 비교분석 결과, 다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한미군이 없는 조건 하에서 남북한 전체 군사력에 대해 우열을 비교하면 2002년과 2003년에는 한국군이 약간의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p=0.003$ ).

둘째, 세부 분야 중에서 한국의 우세는 전쟁지속능력, 정보전 수행능력, 공군전력, 해군전력의 순이며 북한이 우세한 분야는 생화학전 수행능력, 특수전 전력, 예비군 동원전력, 육군(지상군)전력, 정신전력의 순이었다. 2005년에는 전쟁지속능력에 있어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3년 간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분야별 평가가 동질적인 분야는 정보전과 생화학전이며 정신전력과 예비군동원 전력에 대한 평가는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표준편차의 3년간 증감 추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데, 즉 각 분야별로 평가가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으로 변화해 간다고 할 수는 없다.

넷째, 육·해·공군 전력에 있어 몇 년 간의 추세차이는 유의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전력은 2002년에 남한과 북한이 비슷하며 2003년과 2005년에는 북한이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정신전력 분야에서 북한 우세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 2. 군별/계급별 군사력 우열에 대한 인식차이

전체 군사력, 세부 분야별 전력에 대하여 연도별, 군별, 계급별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과는 <부록 표 1>~<부록 표 6>을 참조하라.

첫째, 전체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군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군 공통적으로 한국군이 우세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군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전체 군사력과 세부 전력분야에 대한 평가는 계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중령/대령들은 부사관들보다 전체 군사력과 모든 세부 분야에 있어 북한군이 상대적으로 한국군보다 더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사관들은 한국군의 군사력에 대해 낙관적인 데 비해 고급 간부들은 비판적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간 군사력 인식차이가 육군전력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세부 분야 중 지상, 해상, 공중전력 평가에 있어 자군의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가 타군에 대한 평가보다 높다. 군별로 공군전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모두 공군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공통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전력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자체 전력에 대해 타군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즉 육군 응답자는 지상군(육군)전력에 대해 타군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평가하며, 해군 응답자는 해군전력에 대해 타군 응답자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공군 응답자는 자체 전력을 2002년에는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현시점에서는 타군 응답자보다 자체 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중령/대령들이 하위 계급의 간부들보다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령/대령들의 평가가 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중령/대령들이 국방부나 각 군의 군사력 건설 분야 실무를 경험했거나 북한 정보에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령/대령 계급이 상대적으로 인지적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표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령/대령들은 동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 군사력을 더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육·해·공군 공통적으로 응답자들은 자군의 전력을 타군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자군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은 동기적 의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 결과는 중령/대령들의 객관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대북 군사력 우열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 1. 상관관계 분석

전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각 연도별로 전체 군사력과 세부 분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 연도 공통적으로 전체 군사력과 모든 세부 전력분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군사력과 세부 전력분야의 상관계수가 높은 순서는 2002년 자료로 육군전력 > 해군전력 > 특수전 전력 > 공군전력의 순이었다. 이 네 가지 전력은 약한 정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 2003년 자료로는 육군

전력>공군전력>특수전 전력>해군전력의 순이었다. 2002년에 비하여 공군전력과 해군전력의 순서만 바뀌었다. 2005년도 자료로는 순서가 육군전력>해군전력>특수전 전력>공군전력의 순이었다. 2002년과 순서가 동일하며 2003년에 비하여 공군전력과 해군전력의 순서만 바뀌었다. 3년 공히 포함된 세부 전력분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2. 영향요인 도출을 위한 회귀분석

전체 군사력을 종속변수로 두고 세부 전력분야들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전체 군사력 우열인식에 어느 세부 전력분야가 영향을 미치는가와 어느 독립변수들로 구성된 회귀모형이 가장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 군사력에 대한 설명력을 측정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셋째, 각 연도별로 전체 군사력 인식에 대한 공통 분야와 매년 변화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군사력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들을 연도별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3년 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다. 연도별 분석과 통합자료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전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분야와 세부 전력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 1) 2002년 전체 군사력에 대한 영향요소

전체 군사력을 종속변수로 할 때 세부 전력분야 중에서 어느 독립변수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독립변수 진입방법인 동시(enter)입력방식과 단계선택(stepwise) 입력방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동시입력방식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0.481이며 F값은 93.073으로 회귀모형 전체적으로 유의하다( $p=0.000$ ). 그러나 독립변수의 개별 유의성 검정에서 생화학전( $p=0.349$ ), 정신전력( $p=0.333$ ),

예비군 동원전력( $p=0.859$ ), 정보전 수행능력( $p=0.408$ )은 유의하지 못하다.

〈표 5〉 2002년 전체 표본 회귀분석 결과

입력방식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F 값	유의확률	포함변수
동시입력	.697	.486	.481	.755	93.073	.000	전체
단계선택1	.614	.377	.377	.828	481.870	.000	육군
단계선택2	.673	.452	.451	.776	328.106	.000	육군, 공군
단계선택3	.688	.474	.472	.762	238.076	.000	육군, 공군, 해군
단계선택4	.695	.484	.481	.755	185.419	.000	육군, 공군, 해군, 특수전

유의하지 못한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적절한 회귀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단계선택방식을 수행하였다. 육군전력만을 독립변수로 한, 단계선택 1의 결정계수는 0.377이다. 독립변수를 추가할수록 결정계수의 값은 증가하지만 모형 전체 F값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도 증가되는 결정계수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여 F값이 오히려 감소하며 따라서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결정계수의 값을 최대로 하고 동시에 오차제곱합(SSE)을 최소로 하는 4번째 회귀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표 6〉 2002년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회귀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4	(상수)	.075	.049		1.552	.121
	육군 전력	.483	.028	.486	17.141	.000
	공군 전력	.180	.032	.171	5.593	.000
	해군 전력	.157	.030	.161	5.148	.000
	특수전 전력	.128	.033	.113	3.862	.000

4번째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값이 0.481로 동시입력방식과 동일한 결정계수를 가지며 F값은 185.419로 통계적 검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생화학전 수행능력, 정신전력, 예비군 동원전력, 정보전 수행능력은 전체 군사력에 대하여 독립변수로서 설명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전체 군사력의 우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군전력(0.486)>공군전력(0.171)>해군전력(0.161)>특수전 전력(0.113)의 순서이다(괄호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 4번째 모형의 회귀식에서 육군 전력에 대한 우열인식이 1단위 변화하면 전체 군사력은 0.483이 변화하며 육군전력 우열인식의 영향력이 다른 전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2) 2003년 전체 군사력에 대한 영향요소

2003년 자료를 2002년과 같이 분석하여 수행한 결과가 다음 <표 7>이다.

<표 7> 2003년 전체 표본 회귀분석 결과

입력방식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F 값	유의 확률	포함변수
동시입력	.754	.569	.564	.701	124.839	.000	전체
단계선택1	.669	.447	.446	.790	618.097	.000	육군
단계선택2	.731	.534	.533	.725	428.027	.000	육군, 공군,
단계선택3	.743	.552	.550	.712	313.110	.000	육군, 공군, 정신전력
단계선택4	.749	.560	.558	.705	242.587	.000	육군, 공군, 정신전력, 특수전
단계선택5	.751	.564	.561	.703	196.678	.000	육군, 공군, 정신전력, 특수전, 해군
단계선택6	.753	.567	.563	.701	165.550	.000	육군, 공군, 정신전력, 특수전, 해군, 예비군

동시입력방식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0.564이며 F값은 124.839로 모형 전체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개별 유의성 검정 결과 생화학전( $p=0.156$ ), 정보전 수행능력( $p=0.271$ )은 유의하지 못하다. 해군전력( $p=0.026$ ), 특수전 전력( $p=0.022$ ), 예비군 전력( $p=0.08$ )은 유의수준에 따라 다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단계선택방식에 의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대상은 6개의 모형이다.

육군전력, 공군전력, 정신전력, 특수전 전력, 해군전력, 예비군 동원전력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6번째 모형이 전체적으로 유의하며 ( $p=0.000$ ), 또한 수정된 결정계수도 0.563으로 가장 높으며, F값은 165.55로 동시입력방식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크다. 그래서 6번째 모형을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2003년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회귀계수

단계선택방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6	(상수)	.018	.042		.436	.663
	육군 전력	.489	.028	.495	17.372	.000
	공군 전력	.256	.031	.246	8.244	.000
	정신 전력	.085	.024	.093	3.492	.001
	특수전 전력	.096	.032	.089	3.023	.003
	해군 전력	.073	.030	.075	2.462	.014
	예비군 전력	.055	.025	.062	2.210	.027

2003년 전체 군사력의 우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군전력(0.495) > 공군전력(0.246) > 정신전력(0.093) > 특수전 전력(0.089) > 해군전력(0.075) > 예비군 동원전력(0.062)의 순서이다(괄호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 육군전력과 공군전력의 우열인식이 다른 독립변수들보다 전체 군사력의 우열인식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3) 2005년 전체 군사력에 대한 영향요소

전체 군사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8가지 세부 전력분야와 전쟁지속능력을 독립변수로 더 고려하였다. 다음 <표 9>는 모형들의 결과 값들이다.

<표 9> 2005년 전체 표본 회귀분석 결과

입력방식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F 값	유의확률	포함변수
동시입력	.695	.483	.476	.747	69.726	.000	전체
단계선택1	.616	.379	.378	.813	415.075	.000	육군
단계선택2	.675	.455	.454	.762	283.955	.000	육군, 해군
단계선택3	.684	.468	.466	.754	198.723	.000	육군, 해군, 특수전
단계선택4	.690	.476	.473	.749	153.554	.000	육군, 해군, 특수전, 전쟁지속능력

동시입력방식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0.476이며 F값은 69.726으로 유의한 모형이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개별 유의성 검정에서 정신전력( $p=0.752$ ), 생화학전( $p=0.505$ ), 공군전력( $p=0.149$ )은 유의하지 못하다. 특수전 전력( $p=0.019$ ), 예비군 전력( $p=0.065$ ), 정보전 수행능력( $p=0.047$ )의 유의확률은 고려해야 한다. 단계선택방식에 의하여 적절한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육군전력만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모형 1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378이고, 이외에 다른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에 수정된 결정계수는 비선형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F값도 감소한다. 그러나 육군전력, 해군전력, 특수전 전력, 전쟁지속능력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하며( $p=0.000$ ), 또한 수정된 결정계수도 0.473으로 가장 높으며 F값은 153.554로 동시입력방식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크다. 4번째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2005년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회귀계수

단계선택방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4	(상수)	.132	.061		2.187	.029
	육군 전력	.462	.033	.455	13.947	.000
	해군 전력	.267	.030	.269	8.894	.000
	특수전 전력	.122	.031	.123	3.924	.000
	전쟁지속능력	.115	.036	.090	3.174	.002

2005년 전체 군사력의 우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군전력 (0.455) > 해군전력(0.269) > 특수전 전력(0.123) > 전쟁지속능력(0.090)의 순서이다(괄호안은 표준화 회귀계수). 육군전력과 해군전력의 우열인식이 전체 전력의 우열인식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2005년에 새로이 독립변수로 추가한 전쟁지속능력이 전체 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4) 3년 통합자료 회귀분석

회귀분석에 포함될 3년 통합자료 유효표본수는 2,245명이다. 통합자료에서는 전쟁지속능력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 <표 11>은 각 모형의 결과값이다.

<표 11> 3년 통합자료 회귀분석 결과

입력방식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F 값	유의 확률	포함변수
동시입력	.707	.500	.498	.744	279.695	.000	전체
단계선택1	.630	.396	.396	.816	1473.470	.000	육군,
단계선택2	.684	.468	.468	.766	987.230	.000	육군, 공군
단계선택3	.696	.484	.484	.754	702.007	.000	육군, 공군, 해군
단계선택4	.704	.496	.495	.746	551.037	.000	육군, 공군, 해군, 특수전
단계선택5	.706	.498	.497	.744	444.917	.000	육군, 공군, 해군, 특수전, 예비군
단계선택6	.707	.500	.498	.744	372.467	.000	육군, 공군, 해군, 특수전, 예비군, 정신전력

3년 통합자료의 회귀분석 결과, 동시입력방식의 수정된 결정계수 ( $R^2$ )는 0.498이며 F값은 279.695으로 회귀모형 전체적으로 유의하다 ( $p=0.000$ ). 그러나 독립변수의 개별 유의성 검정에서 생화학전 ( $p=0.171$ ), 정보전 수행전력( $p=0.519$ )은 유의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의하지 못한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적절한 회귀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단계선택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육군전력, 공군전력, 해군전력, 특수전, 예비군 동원전력, 정신전력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6번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 여섯 번째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가 0.498로 동시입력방식과 동일한 결정계수를 가지며 F값은 372.467로 상대적으로 동시입력방식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크다. 독립변수로 생화학전 능력, 정보전 수행전력은 전체 전력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6번째 모형에 대한 결과 값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3년 통합자료의 전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회귀계수

단계선택방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6	(상수)	.098	.027		3.624	.000
	육군 전력	.474	.017	.474	27.440	.000
	공군 전력	.181	.019	.172	9.292	.000
	해군 전력	.148	.019	.151	7.979	.000
	특수전 전력	.106	.019	.099	5.482	.000
	예비군 전력	.037	.015	.042	2.437	.015
	정신 전력	.035	.015	.039	2.372	.018

3년 통합자료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군간부들의 전체 군사력 우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군전력(0.474) > 공군전력(0.172) > 해군 전력(0.151) > 특수전 전력(0.099) > 예비군 동원전력(0.042) > 정신전력(0.039)의 순서이다(괄호안은 표준화 회귀계수). 육군전력의 우열인식이 전체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 5) 회귀분석의 소결론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전체 군사력과 관련을 갖는 세부 전력분야가 서로 다르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관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단순한 선형관련성을 조사하지만,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체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군전력이다. 육군전력과 전체 군사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을 보여주는 조정된 결정계수의 값은 2002년 0.377, 2003년 0.446, 2005년 0.378, 3년 통합자료 0.396이다. 한국 군간부들은 전체 군사력의 인식에 있어 육군전력 우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육군전력과 마찬가지로 공군전력과 해군전력과 같은 전통적 전력(기능) 분야가 전체 군사력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년 회귀분석을 하면 공군전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도도 있고(2005년) 순서도 바뀐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군전력이 일관적으로 전체 군사력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육·해·공군전력이라는 전통적 전력분야 이외에 전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특수전 전력이다. 특수전 전력은 전체 군사력에 매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3년 통합자료에서도 육·공·해군전력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2005년에 독립변수로 전쟁지속능력을 추가하였는데 전쟁지속능력이 전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전쟁지속능력을 추가하지 않아서 3년 통합자료를 통해 정확한 영향력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2005년 경우에는 공군전력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5년 조사에서 전쟁지속능력 변

수의 영향력 크기는 다른 전통적 전력 기능 분야인 육군전력, 해군전력, 특수전 전력보다 낮다. 이는 아직도 군간부들이 군사력 평가에 있어 잠재 전력보다는 현존 전력 중심으로 전체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IV. 결론

이 연구는 남북한 군사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들의 인식에 근거한 군사력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력 평가에 대한 인지적 평가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장교계층을 표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고위 장교일수록 동기적 의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에 의도를 가지고 평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의도를 가지고 평가했다면 자군의 평가를 낮게 하여 자군 이익을 더 우선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중령/대령들의 자료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0.5 이하이고, 2005년 연구에서 전쟁지속능력을 포함하여도 설명력이 0.5 이하라는 사실은 전체 군사력의 우열을 인식함에 있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전력분야가 아니라 다른 설명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가 없어 설명력에 대하여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해석에 있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군사력 우열인식은 국가의 총체적 잠재역량, 산업동원능력과 같은 전쟁지속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사

회적인 역량과 능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미동맹의 약화나 국내의 정치사회적 갈등요소, 병력의 사기 등 질적 요소, 전쟁참여 경험과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작전 및 군수 능력 등 다른 요소도 전체 군사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의 포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식차이 평균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의미가 있다. 남북한 군사력 차이에서 분야별로 북한이 우세한 세부 분야는 생화학전 수행능력, 특수전 전력이었으며 한국은 정보전 수행능력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남북 군사력 격차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생화학전 수행능력이나 정보전 수행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전력과 같은 전통적 전력분야들과 특수전 전력이 우열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북 군사력 우열인식은 한국군이 강하다거나 약하다고 인식하는 분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육군을 비롯한 전통적인 전력에 따라 군사력 우열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군사력 평가에 대한 군간부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군별 표본수를 군규모와 비례하여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군사력 건설소요에 대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군별 표본을 동수로 하거나 표본에 가중치를 주어야 할 것이다. 표본에 가중치를 둔다면 결과가 달리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 결과가 군사력 건설소요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방대학교. 2005. 《전력평가》 국방대학교 합동참모 정규과정 교재.
- 김병조 · 이상진 · 두병영 · 조관현. 2002. “2002 범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군장병 안보의식조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 김병조 · 이상진 · 박균열 · 정재환. 2003. “2003 범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군장병”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 김병조 · 신용도 · 박균열. 2005. “2005 범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군장병”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 문형곤 · 유승근. 2003. 9. 23. “미래 무기체계 전력지수 산출방법론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
- 리영희. 1988.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사회와 사상》 1: 117-144.
- 윤재곤. 1996. “AHP 기법의 적용효과 및 한계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21(3): 109-125.
- 정병호. 1989. “남북한 군사력 — 그 실상과 허상.” 《국제정치논총》 29(1): 111-128.
- 합택영. 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 합택영. 1999. 4. 23. “남북한 군비경쟁 현황과 군사력 평가.”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제26회 남북군사력평가 학술포럼.
- 현인택. 1991. 7. 25. “안정적 억지와 한반도의 군사균형: 남북한 군사력 평가의 재론.” 국제정치학회 제2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427-447.
- Kruglanski, A. W., and I. Ajzen. 1993. “Bias and Error in Human Judge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1-43.
- Saaty, T. L. 1983. “Priority Setting in Complex Problem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EM-30(3): 140-155.

## 부 록

〈부록 표 1〉 2002년 군별/계급별 군사력 인식 평균(단위: 점수)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군 별	육군	-0.117	-0.454	0.402	0.672	-1.041	-1.322	0.026	-0.524	0.891
	해군	-0.022	-0.391	0.598	0.475	-0.888	-1.358	0.123	-0.777	0.922
	공군	-0.158	-0.513	0.120	0.437	-0.987	-1.310	-0.032	-0.703	1.000
계 급 별	부사관	0.101	-0.342	0.638	0.813	-0.584	-0.903	0.160	-0.409	1.101
	소령 이하	-0.182	-0.513	0.439	0.580	-1.164	-1.435	-0.052	-0.554	0.963
	중령/대령	-0.221	-0.494	0.107	0.362	-1.221	-1.624	0.007	-0.875	0.705

〈부록 표 2〉 2002년 군별/계급별 군사력 인식 분산분석 결과 p값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군별 분석	0.453	0.571	0.000	0.000	0.170	0.869	0.425	0.032	0.408
계급별 분석	0.001	0.12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부록 표 3〉 2003년 군별/계급별 군사력 인식 평균(단위: 점수)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군 별	육군	-0.206	-0.390	0.305	0.513	-1.015	-1.213	-0.278	-0.525	0.966
	해군	-0.080	-0.389	0.537	0.549	-0.869	-1.143	-0.080	-0.651	0.971
	공군	-0.090	-0.393	0.365	0.657	-0.871	-1.022	-0.393	-0.820	0.865
계 급 별	부사관	0.117	-0.112	0.543	0.668	-0.457	-0.713	-0.054	-0.139	1.000
	소령 이하	-0.168	-0.465	0.432	0.628	-1.060	-1.192	-0.363	-0.715	1.006
	중령/대령	-0.405	-0.567	0.095	0.319	-1.290	-1.557	-0.314	-0.990	0.786



<부록 표 4> 2003년 군별/계급별 군사력 인식 분산분석 결과 p값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군별 분석	0.291	0.999	0.060	0.287	0.130	0.068	0.035	0.022	0.442
계급별 분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6

<부록 표 5> 2005년 군별/계급별 군사력 인식 평균(단위: 점수)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전쟁지속	
군 별	육군	-0.039	-0.497	0.329	0.626	-1.025	-1.385	-0.346	-0.711	0.803	1.129
	해군	0.071	-0.424	0.549	0.636	-0.973	-1.250	-0.152	-0.826	1.033	1.304
	공군	0.155	-0.514	0.331	0.831	-0.831	-1.106	-0.437	-0.838	0.866	1.106
계 급 별	부사관	0.176	-0.310	0.508	0.706	-0.481	-0.947	-0.112	-0.241	1.011	1.219
	소령 이하	0.022	-0.539	0.464	0.722	-1.085	-1.303	-0.426	-0.965	0.880	1.180
	중령/대령	-0.107	-0.556	0.129	0.545	-1.281	-1.629	-0.320	-0.972	0.763	1.107

<부록 표 6> 2005년 군별/계급별 군사력 우열 분산분석 결과 p값

구 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	정신	예비군	정보전	전쟁지속
F값	0.137	0.663	0.050	0.087	0.172	0.006	0.065	0.365	0.021	0.031
p값	0.031	0.026	0.000	0.125	0.000	0.000	0.013	0.000	0.016	0.398